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의 전국적 도약 위한 새 출발 나서

백호임제문학상이 전국적인 문학상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백호임제문학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상금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새롭게 7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백호임제문학상은 나주 출신의 문학가 백호 임제의 작품 세계와 시대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8년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들을 지원하는 상으로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제4회 운영위원으로는 이승하, 강대영, 김성규, 나희덕, 이영광, 이원 시인과 양경언 평론가가 위촉됐다. 이 중 3명은 전국 문인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은 문인들이다.

지난 12일 백호문학관에서 열린 위촉식과 1차 회의에서는 나희덕 시인이 운영위원장으로 강대영 시인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학상의 운영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와 소설 부문을 격년제로 운영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해, 시 부문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본상, 젊은시인상, 나주문인상으로 시상 분야를 확대하고 시상금도 본상 2000만원, 젊은시인상 1000만원, 나주문인상 5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본상과 젊은시인상은 추천제, 나주문인상은 공모제로 운영한다.

제4회 백호임제문학상 본상과 젊은시인상은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2년 내 발간된 창작시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나주문인상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주 연고의 문인을 대상으로 작품집을 공모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백호임제문학상이 전국적인 문학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기자

장성군,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집중

장성군이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분야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이 모여드는 장성,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족행복센터(장성읍 영천로 199-10) 개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900평(2957㎡) 규모로 읍시가지에 위치해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지하층은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을 갖춰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1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구성해 아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했다. 2층은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복지기관이 들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상무대 아파트와 가까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다. 지상 2층 규모에 커뮤니티홀,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북부지역 보육 공백을 해결해 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도 실시설계 단계다. 백양사역 인근에 바닥 면적 300㎡ 규모로 지을 계획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장성공원'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장성공원 자연 생태 놀이터가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장성 최초 사례로, 국비 지원을 받아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지원도 주목된다. △전남 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유광종 기자

담양군, 시책 발굴 보고회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2025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담양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굴해 담양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자농촌 구현, △담양형 향촌복지 실현, △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시책들이 담양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안된 시책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들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책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종민 기자

최근 3일간 경상북도 구미시 승마장에서 개최된 '제14회 어린말 승마대회'에서 ▲영광승마장 조수형 교관 ▲영광승마장 유설희 교관이 장애물 부문과 국산마 품평회 부문에서 각각 4위, 5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제14회 어린말 승마대회서 기량 뽐내

영광군은 "영광군 대표로 제14회 어린말 승마대회에 참가한 영광승마장 승마교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최근 3일간 경상북도 구미시 승마장에서 개최된 '제14회 어린말 승마대회'에서 ▲영광승마장 조수형 교관 ▲영광승마장 유설희 교관이 장애물 부문과 국산마 품평회 부문에서 각각 4위, 5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국산 4~7세의 승용마를 대상으로 마장마술 3종목과 장애물 6종목, 국산마 품평회 스포츠말 부문과 퇴역마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영광승마장은 장애물 D class(100cm) 종목에서 4위(조수형 교관), 국산마 품평회 퇴역마 부문에서 5위(유설희 교관)를 차지하며 11월 개최되는 '어린말 대회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얻게 됐다. /이경률 기자

화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4억 원 증액한 8,5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총예산 8,50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4억 원(7.77%)이 증가하였다. 일반회계가 465억 원(6.72%)이 증가한 7,383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원(15.27%)이 증가한 1,125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 전출금 등 보전 수입 365억 원 등 총 614억 원 규모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등 사회복지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각각 50억과 13억 편성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4억,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억,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특화지원사업 5억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0억 편성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26억,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25억, m-RNA 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사업 20억, 화순읍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0억 편성

△화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9억,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에 15억,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14억 원 등 환경 분야에 86억을 편성했다. /이문수 기자